

네마프2011: 두 분은 처음 어떻게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초창기 작업과 현재 작업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달라졌고 반면 어떤 점은 유지하고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김은: 대외적으로 처음 전시를 하게 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학생들 스스로 외부 공간을 섭외하여 전시를 해야 했던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 방배동 '브란덴부르크'라는 클래식 음악감상 전용 카페에서 책이라는 형태와 기능을 활용한 전시를 가졌습니다.

대학시절 당시, 전시장을 다니면서 작품 옆에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라는 알림글을 자주 발견하곤 하였는데, "~하지마세요" 라는 부정법에 반발하는 마음에 만질 수 있는 그림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만질 수 있는 그림의 형식을 고민하다가, 동시에 보고 만지며 책장을 넘기는 책의 기능과 형태를 선택하였죠. 이 책을 기반으로 '감각의 거리(distance)'에 관한 '만지는 책', '확대해서 보는 책(돋보기로 보는 책)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책 설치 작업들을 전시했어요. 이후, 유학시절 책이라는 매체보다는 감각들에 관한 작업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책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책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나봐요.

네마프2011: 특별히 다시 책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은: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유학 당시, '오감'에 대한 주제로 사진,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상, 경험에서 느끼어진 감각을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이야기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낯설고도 즐거운 새로움 사이의 경계를 오가며 작업을 행하면서 언어가 자연스럽게 작업 속에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프랑수아 미술 학교에서 유일하게 책을 예술매체로 다루는 '오브젝트-북 object-book'이라는과를 발견하고 진학하게되었죠. '오브젝트-북'과는 책을 만드는 과정, 기술만 가르치는 과가 아니라, 설치 미술이나 비디오 영상작업등 제한을 두지않고 미술적 영역을 확장시켜나가는 작업을 배우고 실험하는 과예요. 그 곳에서 책이라는 재료에 완전히 회귀를 하게 됐죠. 그러나, 책의 형태나 기능이 아닌 책의 구성요소, 컨텍스트들에 대한 책의 특성으로 하여금 유발되는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였어요. 이를테면, 소리내어 책을 읽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운드 작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책이라는 매개체가 없었다면 과연 사운드 작업을 하였을까라고 가끔 제게 질문하곤해요.

네마프2011: 오히려 책을 보면서 사운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게 재미있어요.

김은: 책은 하나의 또 다른 세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물론 실체없이 언어로 대치된, 한없이 부유할 수있는 세계죠. 책이라는 형식과 내용안의 낱말, 텍스트같은 표면의 상태는 어딘가로 향할 수 있는 입구를 마련해주죠. 보르헤스의 소설에 모티브를 얻어 작업한 몇점의 작업 중 그의 <지친 자의 유토피아>라는 단편 소설을 소리로 전환시킨 작품이 소리 작업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네마프2011: 점점 구체적인 감각이 되는 것 같다. 그게 재밌다. 사운드 작업에 매력을 느끼시는 이유는? 사운드에 매체에 집중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김은: 사운드 작업을 하는 작가마다 접근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이라는 영역도 아니고, 미술이라는 영역 안에서 소리를 물질화를 시키는 그런 변환 방법에 있어서도 아니고, 책이라는 매체 안에서 소리라는 매체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근간은 텍스트예요.

미술영역에 있어 물질적이고 시각적인 재료보다 비물질적인 소리와 텍스트에서 다양한 가능성의 통로를 보고 있어요. 봐야만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의 뒤켠에 물러나 있는 비시각적이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미술 영역에 불러들이면서 불가능성을 통한 가능성의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소리와 텍스트에 관해서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고 항상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보다'라는 지각현상속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듣다'라는 잠재적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번 네마프2011 전시가 이러한 주제를 상기시키는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네마프2011: 전시는 상영과 달리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 의도가 전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 처음 의도는 영상작업만 전시할 예정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옛날들> 영상작업 조건에 맞지 않는 전시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작품도 전시하게 되었죠. 이 계기로 아직 전시된바 없는 예전에 한 소리에 관한 드로잉들도 함께 전시하게 되었어요.

'주어진 조건', '제한적 상황'에서 작품들을 어떻게 최대한의 효과와 놀이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조건과 상황들에 어떻게 탈주, 저항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응은 전시 현장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작업들과 공간과의 관계에 반응하고, 작업들과 작업들간의 변주를 실험을 하면서 흥미롭게 설치 과정을 가졌습니다.

네마프2011: 드로잉 작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 보는 형태로 전시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나요?

김은: 드로잉 작업을 했을 때의 그 상황 그대로인 설정이죠.

관객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인위적이지 않은 상태를 의도했어요. 전시 상, 벽에 걸려 세로 형식으로 정면을 취한 것은 '나 좀 바라봐'라는 말을 건네고, 바닥에 놓이거나 가로형식으로 누워있는, 정면을 취하지 않은 것은 다만 '나 여기 있어'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어떤 권위없이, 그냥 놓여져 있는 상태, 프레젠테이션 한나라는 의지가 박탈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도한 그냥 있음, 함이 없이 그냥 있는 존재상태를 표현하기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드로잉 작품 <Drawing #1-Steve Reich>, <Drawing #2-Morton Feldman>에서는 전시(exhibit)보다는 상태(situation)에 가깝게 의도한 작업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품들은 전시공간의 중심을 탈피한 위치에서 서로 관계하고 있습니다.